진실을 만나다 - 밀레
WWW.MILLET.CO.KR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2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박삼구 금호아시아나회장 간담회 〉2
폭력 없는 학교 만들자 〉3
런던 패럴림픽 11일 열전 돌입 〉4
kwangju.co.kr

1952년 4월 20일 창사 | 대표전화 (062) 222-8111~3 | kwangju.co.kr | 제19308호 1판 | 2012년 8월 31일 금요일 (음력 7월 14일)

호우태풍 덴빈 순식간에 목포 삼켰다

제14호 태풍 '덴빈'(TEMBIN)이 불어닥친 30일 목포시 상동 종합버스터미널 앞 왕복 6차선 도로가 물바다로 변해 있다. 시간당 30㎜의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침수된 가운데 학생들이 허벅지까지 차오른 물길을 빠져나오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볼라벤 잔해로 하수구 기능 상실…출근길 시민·차량 긴급대피 아우성

관련기사 2·3·7면

"엊그제 불어닥친 볼라벤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덴빈까지 비를 퍼부어 대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요."

30일 오전 목포시 상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제14호 태풍 '덴빈'이 시간당 30㎜ 이상의 '물폭탄'을 쏟아붓자 터미널 앞 왕복 6차선 도로는 순식간에 흙탕물에 잠겼다. 광주로 출근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터미널을 찾은 시민들의 눈에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일부 시민은 허리춤까지 물이 차오른 도로를 헤치고 벤치나 건물로 급히 대피하는 위험천만한 모습을 연출했다.

일부 시외버스는 물에 3분의 1가량 잠기고, 터미널 주변 교각 밑에 주차된 차량 30여 대는 빗물에 완전히 잠겼다. 터미널 앞 초소는 엊그제 볼라벤의 여파로 생겨난 부유물들과 함께 도로 위를 떠다녔다. 빗물을 감당하지 못한 하수구는 되레 물을 토해냈다.

주변 상가 상인들은 해일처럼 밀려들어오는 물을 바가지와 삽 등으로 퍼냈지만 역부족이었다. 시청 직원들이 급히 모래주머니를 가져와 상가로 밀려드는 물살을 막으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일부 시민은 끝내 진흙이 스며든 가게를 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시민과 공무원들이 함께 나서 하천 물길을 막고,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하수구를 정비했지만 한번 들어찬 물살은 쉽게 빠져나가지 않았다. 특히 최대 순간풍속 33.7m/s의 강풍도 함께 몰아치자 상동 일대 상가의 창문이 떨어져 나가 도로를 덮치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 일대는 오전 9시30분부터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면서, 광주 등 외지로 향하는 시외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돼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또 목포 구도심과 원도심을 잇는 대동맥인 양을산 터널도 차량통행이 통제돼 시민들은 우회도로로 돌아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목포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백련로 용해 사거리의 신호등은 강풍에 힘없이 부러져 나가면서 주변 신호체계가 완전히 먹통으로 변했다. 온금동에서는 옛 충무동 사무소 주변의 길이 40m, 높이 2m의 옹벽이 붕괴돼 주민들이 대피했으며 용당동과 북항동 등 저지대 주택 30여 채가 침수돼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연동초등학교와 죽교동사무소, 온금경로당 등에 분산돼 있다.

이 밖에도 이날 목포에서만 2·3호 광장을 비롯해 용당 1·2동, 죽교동, 목포고·홍일고 일대, 산정농공단지 등 원도심지역에서 침수피해가 속출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볼라벤의 강풍에 부러진 가로수 가지와 잎이 하수도 구멍을 '꽉' 막아 버려 피해가 커졌다"며 "목포 시내가 물에 잠긴 것은 1999년 이후 13년 만이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특별재난지역 곧 선포

당정, 태풍피해 접수 뒤 대상지역 선정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태풍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피해 접수를 종합한 뒤 현장 조사를 거쳐 지체 없이 대상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피해 접수를 종합한 뒤 현장 조사를 거쳐 지체 없이 대상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 태풍 피해를 당한 농어민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생계구호금과 재난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황식 국무총리는 당정회의에서 "양식장 어민과 과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많은 시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당과 잘 협력해 농·어민들의 걱정이 덜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현재 안동 북쪽 약 80㎞ 부근 육상에서 동해로 향하고 있는 덴빈(중심기압 996hPa, 최대풍속 19m/s)은 31일 오후 3시께 속초 동쪽 약 240㎞ 부근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바뀌면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300 Elegance BlueEFFICIENCY
48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Mercedes-Benz

내일 광주·전남 청소년축제…광주월드컵경기장 특설무대

광신대학교 신입생모집
2013년도 학부 수시 1차
원서접수
8월 20일 ~9월 11일
입학문의 062)605-1114
광신대학교

www.hpdynastycc.co.kr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홀인원 대박을!!
로또 누적방식 홀인원 상금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1.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최초 시드머니 100만원을 2개의 Par3 홀에 겁니다.
2. 도전을 희망하시는 팀은 Tee off 전에 1만원을 배팅합니다.
3. 홀인원에 성공하시면 그때까지 누적된 상금의 90%를 수상 하게 됩니다.
➡10%는 차기 홀인원 시드머니로 적립됩니다.
➡소득세는 수상자 부담입니다.
4. 누적된 상금액은 매일 실시간으로 프론트에 게시됩니다.
5. 이벤트 홀은 임페리얼코스 7번, 펠리스코스 20번홀 입니다.
진초록 양잔디 카펫을 밟으며 평생 잊지 못할 짜릿한 추억을!!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 1-6 예약전화 : 061-7700·7777